

# 야구

6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 FA신청 못한 현역 좌완 최다승 3.4위



장원준

장원삼

## 재수 택한 장원준·장원삼

장원준 최악 부진에 수술·재할 LG서 방출된 장원삼 새팀 급구

현역 좌완 최다승 3위 장원준(34·두산 베어스)과 4위 장원삼(36·LG 트윈스)에게 올 가을은 우울함의 연속이다.

KBO는 3일 FA 신청 선수 1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0월 31일 발표한 2020년 FA 자격 선수 24명 중 5명이 빠졌다. 장원준, 장원삼, 박정배, 나주환(이상 SK 와이번스), 손주인(삼성 라이온즈)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손주인은 2019시즌을 끝으로 은퇴 후 삼성 프론트 변신을 선언했다. 선수 생활 연장 의지가 있는 이들로 범위를 좁히면 4명이 FA 재수를 택한 것이다.

장원준은 통산 374경기에서 129승, 장원삼은 354경기에서 121승을 거뒀다. 역대 좌완 최다승 각 4.5위이자 현역 중에서는 3.4위다. 그러나 부진한 성적 탓에 권리를 행사를 못했다. 2015시즌에 앞서 두산과 4년 계약을 맺었던 장원준은 지난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다시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24경기에서 3승7패2홀드, 평균자책점(ERA) 9.92로 데뷔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뒤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절치부심의 각오로 올해를 맞이했으나 6경기 등판에 그쳤다. 이번에도 FA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는 9월말 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고 재활 중이다. 구단에 따르면 3~4개월 재활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후가 좋다면 스프링캠프 합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장원삼도 마찬가지다. 2018시즌 종료 후 FA 재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됐고 LG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2019년에도 8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 ERA 7.98로 고전했다. LG에서도 방출 통보를 받았고 새 팀을 구하는 단계다.

SK의 투타 베테랑 나주환과 박정배도 권리를 포기했다. 내야 유틸리티 자원 나주환은 94경기에서 타율 0.222, 3홈런으로 고전했다. 올해 포스트시즌 엔트리에서도 제외되며 병축한 현실과 마주했다. 박정배도 올해 20경기에 등판했으나 1승1패1홀드, ERA 10.07로 데뷔 후 가장 부진했다. 2020시즌은 이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까. 최익래 기자

## 6인의 소방수, 프리미어12 대표팀의 승리 열쇠



2019년 KBO리그에는 두 자릿수 세이브 투수 12명이 등장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 프리미어12 대표팀에는 여섯 명이 합류했다. 이들이 합작한 세이브만 무려 161개다. 조상우, 고우석, 이재훈, 문경찬, 함덕주, 원종현(왼쪽부터)의 불펜진은 승부처에 언제나 대기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 역대급 클로저 군단, 김경문호의 '든든한 백'

10개 구단 중 6팀 마무리 투수 포함 좌완·엮구리·강속구 우완 등 다양 단기전에 방망이만 믿을 수 없어 위기의 순간 이겨낼 최고 히든카드



달라진 불펜 운용의 트렌드. 국제 대회전에서도 믿을 만한 마무리 투수의 양과 질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다 세이브를 합작한 클로저 군단은 '김경문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

팀에는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의 마무리 투수가 포함됐다. 이재훈(SK 와이번스·36세이브), 고우석(LG 트윈스·34세이브), 원종현(NC 다이노스·31세이브), 문경찬(KIA 타이거즈·24세이브), 조상우(키움 히어로즈·20세이브), 함덕주(두산 베어스·16세이브)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9시즌 161세이브를 합작했다. 종전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145세이브 군단을 앞지른다.

2019시즌에는 역대 KBO리그 최다인 12명의 두 자릿수 세이브 투수가 나왔다. 자연히 프리미어12 대표팀 중간 계투도 이들 위주로 짜였다. 국가대표 경력은 많지 않지만 리그를 호령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 30세이브 투수 세 명이

태극마크를 함께 단 것도 역대 최다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 정대현(은퇴) 등 압도적인 베테랑 카드는 없지만 오히려 현대 야구 트렌드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토니 라루사 감독이 고안한 '9회 마무리 투수 등판'은 최근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가장 강한 투수가 경기 중반 위기 때 등판해 편한 상황을 만드는 전술이 야구의 최신 트렌드다. 키움에 올해 후반 기부터 포스트시즌까지 조상우를 활용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마무리 투수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은 경기 중후반,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보낼 카드가 많다는 의미다. 좌완과 엮구리, 강속구 우완 투수 등 다양한 스타일도 가치를 높

인다.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투수 얘기가 나올 때면 "정말 어렵고 중요한 자리다. 아무래도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며 "컨디션에 따라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상우에 대해서도 키움에 그랬듯 6~7회쯤 위기 투입 가능성 시사했다.

단기전에서 타격은 믿을 요소가 아니다. 물론 선발투수가 70닝 이상 소화하고 타선이 대량 득점을 해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인 기대치는 아니다. 역대 한국 야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언제나 극적인 세이브 순간이 있었다. 이번 프리미어12의 클로저 군단은 또 한 번의 드라마를 가능케 할 요소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김광현·양현종 해외진출 쇼케이스?

스카우트 이목 집중된 프리미어12 김광현 ML 진출 위한 중요한 기회 일본 팀들은 양현종에 꾸준한 관심

국제대회에서 '쇼케이스'를 열 수 있을까.

2019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의 선발투수 원투펀치는 좌완 동갑내기 양현종(31·KIA 타이거즈)과 김광현(SK 와이번스)이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두 투수는 김경문호의 핵심 자원으로 이번 대회에서 맡은 역할이 매우 특별하다.

둘은 대표팀에서 가장 확실한 선발카드

다. 김경문 감독은 "국제대회에서는 짧은 호흡으로 이닝을 끊어 가려 한다"고 밝혔지만, 두 투수의 활약에 따라 계획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효율적인 투구로 긴 이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이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발 투수에게는 당연히 해외 구단 스카우트들의 눈길이 쏠린다. 프리미어12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관하는 대회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L)과 달리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지만 마이너리그 유망주 및 일본, 한국, 대만리그 정상급



김광현

양현종

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의 이목은 적지 않게 집중된다.

김광현은 올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이 매우 유력하게 연결돼 있다. 복수의 에이전트는 "많은 팀들이 김광현의 포스팅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체적인 조건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어12 맹활약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양현종은 당장 해외무대에 진출할 상황은 아니다. 소속팀 KIA 타이거즈에 대한 애정이 워낙 넘치는데다 본인도 누차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도쿄 올림픽 이후를 강조했다. 그러나 1년 뒤를 바라본다 해도 현 시점부터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는 분명 있다. 특히 양현종은 꾸준히 일본 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야구는 세계화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국가가 한 곳에 모여 대항전을 치를 기회는 많지 않다. 스카우트들이 굵직한 대회마다 파견돼 선수들을 직접 보는 이유다. 이번 대회 역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쇼케이스' 그 자체다. 이는 분명 대표팀 토종 원투펀치에 계도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 보상 부담에 주도권 기울어진 협상테이블

### 재자격 FA 9명이 던지는 시사점

평균연령 35.7세 이적 어려운 현실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 찍는 경우도 선수협 사무총장 "보상 완화 필요"

재자격 자유계약선수(FA)가 쏟아진다. KBO는 3일 FA 신청선수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재자격 선수는 9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종전 2017년의 8명보다 한 명 많은, FA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재자격 선수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리그 전반에 불어 닥치는 세대교체, 리빌딩의 트렌드

에서 이들이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 ●위험 감수한 9인, 미야 사태를 피할까

현행 FA 제도에서 두 번째 자격을 얻는 건 최소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올해 재자격 선수들도 최고령 유한준(38)부터 최연소 오재원, 박석민, 정우람(이상 34) 등 모두 30대 중후반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5.7세다. 이들에게 20인 외 보상선수를 내어주며 장기 계약을 안기는 건 구단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따른다. 자연히 주도권은 구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에서 선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노경은처럼 미야가 돼 1년간 야구를 할



KT 유한준 NC 박석민 두산 오재원 한화 정우람

수 없게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 ●첫 자격 얻은 젊은 피, 운신의 폭 넓어진다

반대로 10명의 신규 FA 선수들에게는 운신의 폭이 넓다. 2017년 최형우-이대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100억 원대 FA 선수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치택 스토브리그 판도를 바꿀 대어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알짜배기 선수들이 많다.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 등 1990년대생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시장에 함께 나온 이들의 연령대가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가치가 올라갈 전망이다.

### ●현실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재자격 FA 선수에게는 사실상 이적의 길이 막힌 모양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3일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연령대에 따라 보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FA 권리 행사 후 4년 뒤 재취직이 가능한 것도 문제다. 자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자격을 얻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KBO는 4일 2019년 제7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FA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올해 FA들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지만, 30대 중반 베테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익래 기자